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 탈출 34,4ㄱ-6,8-9

화답송 | 다니 3,52ㄱ.52ㄴ.53.54.55.56(◎ 52ㄴ)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2코린 13,11-13

복음환송 |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 요한 3,16-18

영성체송 |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교리인 삼위일체의 신비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박해시대에도 경험하지 않았던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 중지'라는 신앙생활의 공백기를 체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조심스럽게 미사를 재개해서 지금까지 각 본당에서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미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신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post corona)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들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크게 변화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회의 사목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활절 전날 우리 교구의 '가톨릭사랑평화의집'을 찾아 도시락 배달을 하며 쪽방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 같

은 쪽방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에도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을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그들을 돕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고에 따라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선은 교회가 지닌 본질적인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끝없는 소유욕과 지나친 소비가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절대적 가난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빈부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먼저 물질 중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루카 16,13 참조).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받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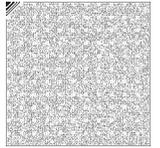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제주 '성 이시돌 새미 은총의 동산' 목주기도 길에 있는 십자가상 뒤로 후광처럼 노을이 곱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윤태영 토마스 | 복음화 활동가

| 열매 맺는 삶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해 학비를 내지 못해 2학년 반 배정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둘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하려 백방으로 노력하셨지만, 가난한 저희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지요. 현실을 알았던 저는, 공부에 뜻도 없으니 공장에라도 취직할 생각으로 구인 광고를 보곤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2학년 첫날, 학교에 간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집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학년 3반으로 배정됐으니 내일부터 나오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갑자기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역사 선생님께서 저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한 첫날, 수녀님 한 분이 화가 난 표정으로 교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으시고는 그 자리로 가서서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꽁!’ 하고 놓고는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돈을 내지 못했다고 학생을 오지 못하게 하는 곳이 학교입니까!”

그렇게 떠나신 수녀님이 남긴 봉투는 지난 1년 치 학비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한 수녀원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 그 수녀원에 찾아가 사정을 하셨던 거지요. 사실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녀원에서조차 사정은 딱하나 자격이 되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고 또 청하셨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빵을 구하러 온 친구처럼 말이죠(루카 11,5-8 참조). 그 간절함 때문이었던지 수녀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지원금을 저희 어머니께 주시지 않고, 수녀님께서 학교를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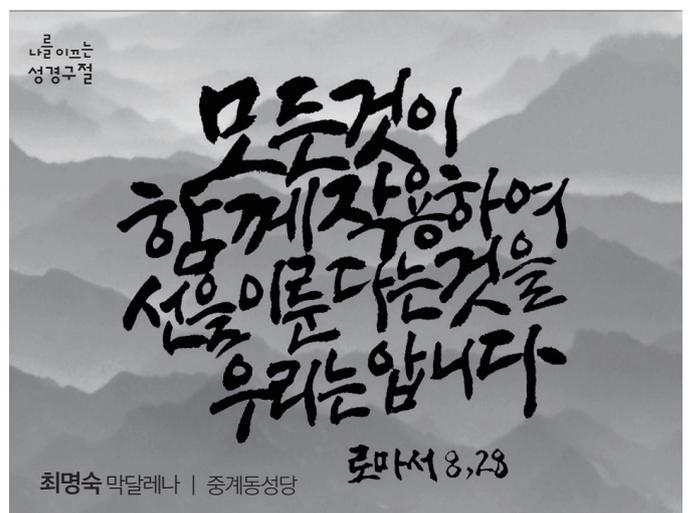
접 찾아가셨던 겁니다.

철이 없던 당시의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회심하여 신앙을 되찾은 이후에야 감사한 마음이 피어났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 수녀님을 만나러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수녀님의 단호했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난 네가 기억도 나질 않아. 잘 살았으면 됐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가서 열심히 살어!”

수녀님의 무뎠고 차가운 태도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삶으로 가르쳐주신 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고 정의를 선포한 이후에, 그것을 내 업적과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기억에 남지도 않으셨던 게 아닐지... 그저 맡겨진 소임에 충실했던 착하고 성실한 종처럼, 하느님께서 일을 마치실 것을 믿고 자신의 몫에 충실하는 것.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받은 저 또한, 그렇게 살아서 그 열매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1코린 3,6)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신앙고백



엘 그레코 「삼위일체」, 1577-1579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 모습 안에서 또 인간의 역사 안에 드러난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모든 믿는 이들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 분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위격(位格)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드러난 하느님께서는 같은 신성(神性)을 지니신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습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 '위' (位)로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위' (三位)로 드러나신 하느님께서는 '일체' (一體)를 이루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대영광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합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간이며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 유사종교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 지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한 묵시록에 계시된 내용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성부께서 활동하신 시대로, 신약을 성자의 시대로, 그리고 교회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대로 구분하며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처럼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느님께서는 한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 위격이시되 언제나 항상 한 분이로서 함께 활동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뤄진 하느님의 모든 업적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한 분이시며 일치(一致)를 이루며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

“예수님은 본성상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지니신 하느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창조하시고, 구속(救贖)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실제적 관계 안에서 전부이자 유일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7년 6월 11일 삼중기도 중에서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의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그린도어’(Green Door)

“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가난을 극복하려는 이주 현상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들의 어려움에 함께 연대하고, 이들도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교회의에서는 특별히 난민과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교회에서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도어’는 성경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착한 목자 예수님의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살고 있는 착한목자수녀회의 정신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야채 농장과 돼지 등 축산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가난 때문에 고국을 떠나와 자신의 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착한목자수녀회는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농촌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 나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일터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도시에서 사는 노동자들보다도 올바른 정보력이나 교통, 교육 등의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



노동자들의 비닐하우스 주거환경

다. 일주일에 3~4일씩, 때로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더 자주 현장을 오가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린도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차량’과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차량을 구할 수 없어 도움을 주러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사는 곳까지 가서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남녀가 얇은 판넬로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으며, 성폭력, 혼전 임신과 낙태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을 피하거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긴급하게 피신하려고 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 피난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및 생활 여건의 향상을 위해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여러 나라로부터 온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보다 품위 있는 삶을 가꾸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6월6일~7월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그린도어’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 및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담화문

코로나19와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3개월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지금, 먼저 감염병 예방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인 여러분께,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감염병 예방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와 부활 대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각 가정에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신앙의 삶을 지속해오신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자 하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번 감염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분들, 투병 중이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등장한 이번 감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이 감염 예방의 필요성 때문에 그분들의 임종과 배웅의 자리에 친지가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감염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특히 상태가 위중하신 분들과 죽음의 문턱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이 병환을 잘 견디고 이겨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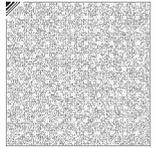
시기를 기도합니다.

☞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염이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녕이 타인의 안녕과 무관하지 않으며, 타인의 안녕이 나의 안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나의 생명이 타인의 생명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선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자유를 빛나게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이른바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자유가 빛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꺼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불편을 받아들인 시민들, 몇 장의 마스크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경찰서에 기증했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뛰어든 의료인들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이웃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유는 더 큰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유는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책임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짚어지는 사후적 책임만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부터 자신과 이웃의 선익을 생각하는 예견적인 책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책임 가운데 첫째는 바로 생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신과 이웃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자유를 의미 있게 해주고, 자유를 빛나게 해주는 근본 바탕입니다.

🌿 생명 존중의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이름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이 약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 경제적 이득, 그 밖의 모든 가치는 생명 존중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는 우리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일깨우며,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생명 존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 약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비좁은 공간에 모여 일하던 콜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염에 노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감염에도 취약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을 낳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지역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번 감염병으로 각 나라의 상품들이 손쉽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의 취약함이 드러났습니다. 나라 간의 교역이 어려워질 때,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은 재화 부족

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수입에 의존할수록, 교역의 장애가 기본생활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량입니다. 식량의 위기는 사회와 국가의 위기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생산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촌이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닦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견뎌낼 힘을 기르기 위해, 우리 농촌 살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일상에서 생태계를 생각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의 집’, 생태계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 감염병의 유행은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욱 분명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비주의 생활방식이 환경파괴와 생태계 변형을 가져왔다면,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일상의 작은 몸짓들”을 통해 환경의 훼손을 막고 절제의 문화, “돌봄의 문화”(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231행)가 삶 안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나와 내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시련을 우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프란치스코, 부활 제2주일 강론, 2020년 4월 19일 참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진정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협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읍 주교

주요비

오늘(6월 7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최선웅(야고보)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최선웅(야고보, 77세) 신부님께서 지난 5월 24일(일)에 선종 하셨습니다. 최선웅 신부님은 1944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하여 1971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미아동(현, 길음동), 아현동·대방동·난곡동·성북동성당, 교구 사회복지회 지도(현,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구 관리국장 겸 가톨릭회관장, 가락동·삼성동·상계2동·여의도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14년 9월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5월 26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예수회 사제 서품식

주례: 정순택 주교 / 서품식: 7월 1일(수) 14시, 명동대성당
수품자: 김학준 미카엘(서울대교구 명일동성당), 김민호 마르티노(부산교구 달맞이성당), 김우중 스테파노(인천교구 용현5동성당), 김현직 토마스(서울대교구 구파발성당), 오현철 프란치스코(청주교구 신봉동 성 스테파노 성당)

• 올해 예수회 한국관구 서품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서품자 가족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디 마음으로 함께 하여주시고, 이 형제들이 화해와 정의의 사절로서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6월14일 윤희중 마태오 신부(76세)
- 2007년 6월8일 손영일 바르나바 신부(67세)
- 2007년 6월12일 장덕범 바오로 신부(84세)
- 2008년 6월13일 나상조 아우구스티노 신부(87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구정일림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일 첫째주(화) 7월7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가톨릭학생회동문회 미사

가톨릭학생회동문모임 겸 나상조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추모미사 / 주최: 청소년국 학교사목부(cell)
때, 곳: 6월12일(금) 18시, 가톨릭 청소년 회관(해화동) 1층 / 문의: 010-3772-3848 한국가톨릭학생동문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최동진 유리화전: 제 1전시실
은효진 사진전: 제 2전시실
이갑재 사진전: 제 3전시실
전시일정: 6월10일(수)~15일(월)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무료전화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월~금, 10시~13시, 14시~17시) / 문의: 02)727-2137, 2138

재능기부자 모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정신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점검에 함께할 재능기부자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6월1일~30일 / 활동기간: 9월~10월
활동분야: 사회복지시설 업무(회계, 노무, 조직, 인사 등) 전반
활동장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사회복지시설(서울전역) / 모집대상: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문의: 02)727-224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음악 직무자 교육(반주자 1단계)

주최: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내용: 전례 직무자로서 전례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기 교육(전례 및 전례음악의 정신, 오르간의 이해, 코랄성가 반주법)
대상: 본당 오르간반주자(평일미사 반주자 포함)
때: 6월20일(토) 12시30분~18시30분
곳: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중림동 소재)
접수: 6월1일(월)~12일(금) 선착순 20명
회비: 7만원(1인당)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접수와 입금완료 해야 신청됩니다
신청방법: 교회음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musicasacra@seoul.catholic.kr) 전송
문의: 02)969-5109 성음악위원회 직무자교육 담당자

자살유가족을 위한 미사 및 슬픔 속에 희망찾기

대상: 가족이나 이웃의 자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하는 모임 / 02)318-3079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때, 곳: 6월20일(토) 10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6월 후원회원 월례미사는 없습니다 교정사목위원회 내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및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 02)921-5093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에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구분: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6년 2월28일 이전 출생)
모집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가톨릭지도자 추천전형, 학교장추천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원서접수: 9월23일(수)~28일(월) 인터넷 접수
교리시험·면접: 11월27일(금)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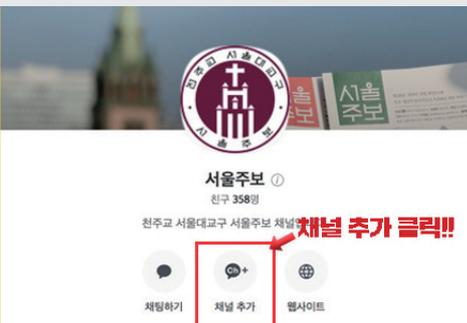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인준단체 일람

모임

파티마 성모발현 기념 피정

때: 매월 13일 10시(기도)·11시(강의·고해성사)·14시(미사·성체거동행렬·강복) / 문의: 031)952-6324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주최)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제주 성지순례 3일

지도: 안성철 신부(성바오로수도회)
 때, 곳: 6월16일~18일·7월24일~26일·7월28일~30일·8월7일~9일, 제주성지 7곳(성지 해설) / 문의: 064)805-9890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돌깨 미디어 / 문의: 010-3173-2665

돌깨생활 피정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최영민 신부 (예수회)
혼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oh my half	

예수회 말씀의 집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문의: 031)254-8950(www.jesuits.or.kr/hwsj)

30일 피정	7월27일(월)~8월27일(목), 10월5일(월)~11월5일(목)
8일 피정	9월15일(화)~24일(토), 11월11일(수)~20일(금), 11월26일(목)~12월5일(토), 12월12일(토)~21일(월)

성도성심과 함께하는 40일 하느님 자비기도

주제: '성막과 십자가 치유' 성경강의와 매일미사
 때: 6월15일(월)까지 10시30분~17시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주최)

6월11일	윤민재 신부(수원교구)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특강 6월18일	김연준 신부(광주대교구)	
6월25일	김찬용 신부(대전교구)	

성령성교수녀회 6월 프로그램 / 문의: 010-2539-4895

새로운 성경 묵상 (비블리오 드라마)	6월20일 9시30분~15시(1단계) / 인원: 15명
	6월27일 10시~17시 / 인원: 10명
피정(자체·위탁), 대관	blog.naver.com/msc-ssps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6월12일~14일, 6월17일~19일, 6월26일~28일, 7월3일~5일, 7월19일~21일
자연순례·우도 여름해변 자유일정 포함	7월25일~28일, 8월1일~4일, 8월6일~9일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문의(접수): 010-9099-2337

예수마음기도	6월13일~14일·6월20일~28일, 파주
이나시오 피정	6월26일~28일, 파주
에니어그램	6월12일~14일, 파주
영적거장에게 배우다	6월15일~7월20일, 서울

두 성심의 일치 피정(마리아학교)

때, 곳: 6월8일(월) 10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있음, 회비 없음 / 문의: 010-9620-4820

렉시오 디비나 피정

때: 6월9일(화)·16일(화)·23일(화)·30일(화) 14시~17시(14시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15시 실제·16시 미사) / 회비 없음
 곳: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주최, 양주시)
 문의: 010-5230-2986(cafe.naver.com/monteoliveto)

제주 성 이시들 자연 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때: 6월19일~21일, 7월3일~5일, 7월27일~29일, 7월31일~8월2일 / 문의: 064)796-9181

혼인재발견(르트루바이) 주말 / 문의: 02)929-2141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박3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 곳: 7월3일~5일, 베네딕도 피정의 집(장충동)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6월26일(금)~28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장천면)
 6월18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내용: 부작용이나 공복감 없이 진행되는 효소단식으로 독소·노폐물·체지방 등을 디톡스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프로그램이며 함께하는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현존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영육간의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때, 곳: 6월12일(금)~15일(월)·7월24일(금)~27일(월)·8월7일(금)~10일(월)·8월14일(금)~17일(월), 성도미니코스수도원(수유동) /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원)

곳: 가톨릭회관 3층 333호 / 대상: 글씨에 관심있는 분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시스띠나음악원 회원 모집 / 문의: 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 금) 11시 / 오후반 (화) 19시30분(주1회)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화)	무용 14시	(목)	장구반주 초급 11시·중급 14시·고급 16시30분, 솔리스트 과정 19시
-----	--------	-----	-------------------------------------------

20~30대 청년을 위한 구약통독

지도: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때: 6월~12월 (일) 16시~18시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회비: 10만원(3개월) / 문의: 010-4598-6912

1:1 온라인 복음화학교

비대면 우편방식 또는 SNS 방식 / 문의: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교육국
 대상: 현장 수업을 받기 어려운 희망자는 누구나(해외 교민, 지방 거주자, 서울 거주자 중 현장 참석 어려운 분)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 가톨릭바리스타협회

주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담당: 이경훈 신부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학교 밖 청소년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 14세~24세
 활동: 진로진학 상담, 자기계발, 문화체험 등 (중졸, 고졸 검정고시준비반 상시 운영)
 곳: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역촌동성당 3층)
 문의(접수): 02)382-5652 / 홈페이지(www.ju.or.kr) 참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계 특강

과목: 피날레로 악보 그리기, 클래식명곡 음악감상, 클래식기타로 성가 연주하기(입문·초중급), 아베 마리아와 성체 묵상곡으로 배우는 발성법, 가톨릭 성가를 이용한 합창 편곡법,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의 실전을 돕는 악보분석법, 성가대 지휘를 위한 지휘실습, 화답송을 위한 정확한 발음의 자리와 발성법, 가톨릭 성가의 이해, 초보 오르가니스트를 위한 기초건반화성 I, 독일어와 종교곡 및 전례곡, 성악 앙상블
 때, 곳: 7월~8월, 최양업홀 / 접수기간: 6월1일(월)~20일(토)
 문의(접수): 02)393-2213~5(http://www.casm.site)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18시30분~20시30분	강사: 강세나 (010-7795-6409)
국악가-대금·소금·단소, 생활음악악기-판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틴취슬	(화, 수)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강사: 김경숙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강사: 한상희(010-7244-1312)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 6주 과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몸 신학 교리 해설	(월) 10시~12시	김해숙박사
코로나 사태 이후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참여	(화) 10시~12시	김미정수녀
창세-민수 만물의 시작, 믿음의 시작	(화) 19시30분~21시	주원준박사
바오로 입문 과정	(수) 10시~12시	인숙희박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그리고 겸손·묵화의 영성(7주 과정)	(목) 10시~12시	손우배 신부

목주 반지 목걸이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 정교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자원교사모집 사진, 영상편집 및 제작, 인테리어 재능기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월3동) / 02)2691-6543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기숙형)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학년편성: 중등 3년, 고등 3년 / 교육과정: 기초, 인문예체능, 특성화, 진로체험, 특별교육
 수시입학 / 기숙사 운영(통학 및 기숙 중 선택)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살레시오미래교육원(양천구 신월3동)
 문의: 02)833-0930(dybsbosco@daum.net)

미사

들꽃마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

지도: 최영배 신부(들꽃마을) / 문의: 054)955-4133, 4
 때, 곳: 6월9일(화) 14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6월24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내용: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때, 곳: 6월12일(금) 10시~14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중식 제공 / 문의: 02)379-8091

인내

자기돌봄명상(서울 포교 베네딕도 고척상담센터)

온라인·오프라인모임 문의(접수): 010-6388-2665

꼬메스영성상담소

영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만나면 십과 회복이 있습니다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운영 /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안심병동' 운영 / 041)950-1008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읍기의 희망수업'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
 때: 6월13일(토) 14시 / 문의: 945-5985~7(회비 없음)
 곳: 명동대성당 신관 지하 1898광장 / 강사: 이해정 수녀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과 가족모임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수) 19시~21시

강서푸드뱅크마켓 인테리어모델링 재능기부 요청

요청사항: 신축건물 매장 내 진열대 배치 및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인테리어 모델링 / 후원문의: 02)2635-
 1377, 02)2663-1377(<https://dc7.or.kr> 열린마당-공지사항)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부적응 등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726-0700

전문 심리상담	개인, 부부, 가족(자녀), 청소년 및 미술 치료(아동) /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성격), 학교·직장내의 부적응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 02)2258-7720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비대면 상담 가능
 상담비: 대학원생 5천원, 전문가 7만원

직원모집

서울SOS어린이마을 직원 및 교사 모집

분야: 간호사(대상: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초등 학습 교사(대상: 교직 정년 퇴임자-주4회 19시~21시)
 이메일(comesos@hanmail.net) 접수 / 문의: 02)2692-0253

꾸르실로 회관 주방장 모집 / 문의: 02)337-8588

대상: 경험자 우대, 세례받은 지 1년 이상된 교우 1명
 (비상근 계약직)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반포4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분
 업무: 시설관리, 미화, 방호, 운전 가능하신 분(1종)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모집시까지 우편·방
 문(우 06593,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10길 38 반포4
 동성당) 및 이메일(nicerosa@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은 개별 통보 / 문의: 02)3482-2255

서울대교구청 특수사목사제관(성북동 소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를 받은 분 / 인원: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
 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
 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6월14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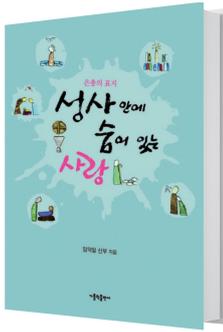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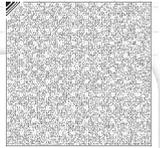
서울주보 게재신청 안내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문화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
 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7437-3217
성령 선교 수녀회	수시	본원(명륜동)	010-6683-6322(sspskorea.org)
성심수녀회	6월20일(토) 14시~18시	소피아 기도의 집(용산구 원효로19길 49)	010-3993-0316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둘째주(토) 15시~(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한국외방선교회	7월5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극장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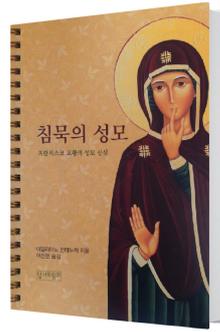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임덕일 지음
가톨릭출판사 | 226쪽
1만원 | 문의: 02)6365-1888

“성사는 사랑 자체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 사랑의 증여자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표지다.”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성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가는 길잡이다. 임덕일 신부의 한 평생 삶의 체험담과 예화로 엮은 성사 생활의 가르침을 담았다.



신간
침묵의 성모

에밀리아노 안테누치 지음
성서와 함께 | 72쪽 | 6천원
문의: 02)822-0125

침묵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 책은 침묵의 덕행(침묵, 경청, 겸손, 기쁨, 주묵, 기다림, 분별, 은유, 항구함, 순수, 신뢰, 자비)과 침묵의 열매(신뢰, 경청, 겸손, 일치, 희망, 자유, 평화, 기쁨, 사랑)를 청하며 9일 기도, 묵주기도를 하도록 안내한다.



신간
**전쟁과 사랑
(사치코 이야기)**

엔도 슈사쿠 지음
바로르달 | 616쪽 | 2만5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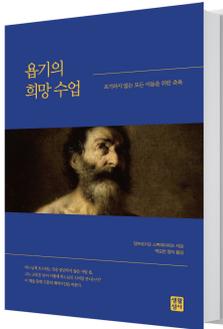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간의 깊은 내면을 탐구한 가톨릭문학의 대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나가사키에서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는 사치코와 슈헤이 이야기,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수인을 대신해 목숨을 바친 콜베 신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신간
**늘 푸른
성경 여정 스페셜**

마이클 페녹 지음
생활성서사 | 176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청장년 신앙 가족을 위한 새로운 성경 교재, 첫 권인 신약 '스페셜' 편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가톨릭 교의와 조화롭게 연계시킴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말씀 여정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신간
옴기의 희망 수업

암브로지오 스프레아피코 지음
생활성서사 | 256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누구나 억울한 일 한번 겪지 않고 불의와 부조리를 한번도 겪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까닭 모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옴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이 책은 옴기에서 말하는 고통의 의미, 우정과 함께함의 의미, 하느님께서 주신 대답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풀어 준다.



신간
지혜 여정-예언서1

박형순 지음
생활성서사 | 16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이사야서 전체를 다루고 있어서 본격적인 예언서 편을 제대로 맛보는 데 도움이 된다. 각 장의 세부 내용과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 주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이를 토대로 다른 예언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준다.

❖ 성모 성월 꽃봉헌해주신 분들 ❖

(집수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꽃봉헌금 총액 : 9,180,000원

의명	: 500,000원	의명	: 300,000원
김우정	: 300,000원	의명명	: 300,000원
이규은	: 200,000원	회장단	: 200,000원
이종구	: 200,000원	윤창숙	: 200,000원
김학렬	: 200,000원	황혜숙	: 200,000원
김범석	: 200,000원	의명명	: 200,000원
김크리스티아나	: 150,000원	이정환	: 150,000원
신경옥	: 130,000원	황귀숙	: 100,000원
의명명	: 100,000원	의명명	: 100,000원
신문영	: 100,000원	방혜진	: 100,000원
염지애	: 100,000원	이정자	: 100,000원
김복순	: 100,000원	김영애	: 100,000원
의명명	: 100,000원	정수인	: 100,000원
장혜영	: 100,000원	탁달원	: 100,000원
선교봉사분과	: 100,000원	지태욱	: 100,000원
김양실	: 100,000원	의명명	: 100,000원
안보원	: 100,000원	의명명	: 100,000원
안나화	: 100,000원	서민지	: 100,000원
성음악봉사분과	: 100,000원	이혜리	: 100,000원
전례봉사분과	: 100,000원	의명명	: 100,000원
김영미	: 100,000원	오영호	: 50,000원
최희순	: 100,000원	의명명	: 50,000원
백정주	: 50,000원	김진경	: 50,000원
의명명	: 50,000원	의명명	: 50,000원
이정옥	: 50,000원	의명명	: 50,000원
의명명	: 50,000원	최태순	: 50,000원
석지윤	: 50,000원	이미경	: 50,000원
이현우	: 50,000원	최영재	: 50,000원
의명명	: 50,000원	정은미	: 50,000원
정혜자	: 50,000원	김진욱	: 50,000원
전은희	: 50,000원	하상희	: 50,000원
김희자	: 50,000원	이보혜	: 50,000원
강영자	: 50,000원	은총이가득하신마리아Cu.	: 50,000원
의명명	: 50,000원	여성봉사분과	: 50,000원
박종국	: 50,000원	김경미	: 50,000원
자비의모후Pr.	: 50,000원	구역봉사분과	: 50,000원
김미정	: 50,000원	의명명	: 50,000원
천주의성모마리아Cu.	: 50,000원	박상현	: 50,000원
김옥순	: 50,000원	이옥진	: 50,000원
기장생명봉사분과	: 50,000원	조경수	: 50,000원
정태훈	: 50,000원	이태권	: 50,000원
나눔교봉사자회	: 50,000원	의명명	: 50,000원
의명명	: 40,000원	선교부명	: 30,000원
최윤진	: 30,000원	의명명	: 30,000원
손지윤	: 30,000원	손지영	: 30,000원
전순삼	: 30,000원	김혜림	: 30,000원
심옥진	: 30,000원	한주완	: 30,000원
평화의모후Cu.	: 30,000원	김태남	: 30,000원
김영자	: 30,000원	의명명	: 20,000원
이경선	: 20,000원	의명명	: 20,000원
김윤희	: 20,000원	의명명	: 20,000원
의명명	: 20,000원	문경자	: 20,000원
김영진	: 20,000원	김정숙	: 20,000원
의명명	: 10,000원	김민정	: 10,000원
최순례	: 10,000원	이명하	: 10,000원
의명명	: 10,000원	의명명	: 10,000원
고혜영	: 10,000원	박수연	: 10,000원
의명명	: 10,000원	의명명	: 10,000원
의명명	: 10,000원	이순옥	: 10,000원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

(교무금을 은행에서 송금 또는 자동이체하실 경우)

현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교무금 입금액이 다수 있습니다. 교무금을 은행에서 납부하신 적이 있거나 매월 자동이체 중이신 명동 교적 신자 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내방 가능하신 분들은 납부하신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인의 성명과 더불어 생년월일(6자리)까지 기재** 하여 송금(자동이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 또는 교무금 통장 앞면에 있는 신자 개인번호를 기재해 주셔도 납부자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말일은 송금(자동이체)을 삼가해 주세요!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오는 데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 약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5월 교무금을 31일에 송금(자동이체)하실 경우 6월분 교무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헌금을 포함하여, 성당 사무실에서 책정하신 교무금 납입금액과 송금(이체)액이 다른 경우 필히 성당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774-1784(☎)
753-1784(FAX)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 라 리 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 르 티 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 례 자 요 한)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 】

■ 미사 전 준비

- 미사 참례자는 대성전 입장 전,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조사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둔 지정석에만 앉습니다.

■ 미사 중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거나 가능한 한 조용히 응답합니다.
-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예: 평화의 인사 등).
-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아멘' 합니다.
- 봉헌과 영성체 행렬 시 앞 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미사 후

-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가져갑니다.
- 미사 후에는 다음 미사 준비를 위해 대성전 출입을 통제하오니 미사가 끝나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등에 따라 상기 지침이 주보 발행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보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재개에 따른 기타 방침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설 고해소와 예비신자 교리학교 운영, 본당 제 단체의 모임과 회합, 외부 대관행사는 '계속 중단'됩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5월 25일 ~ 5월 31일 : 1,200,000원)
누계 : 1,532,325,123원

한 일 석 : 1,000,000원 | 김 영 애 : 100,000원
의 명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요 일	미사시간	미사장소
월~토	10:00, 18:00	대성전
일요일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영어미사 없음.)	

※**토요일 오후 6시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대성전 개방 시간**

-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 주 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례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되며,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일미사 참례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중단됩니다.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 참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봉사부와 주일학교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첫영성체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여름캠프는 없을 예정입니다. 초등부·중고등부·솔봉이 주일학교 개학은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 보류됩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5/25-5/31).....31,096,000
 - 성령 강림 대축일 헌금.....10,654,140
 - 감사헌금 (5/25-5/31).....3,010,000
- 김 가브리엘라 / 김 소피아 / 성 세실리아
송 안드레아 / 이 가브리엘라 / 이 미카엘라
이 바오로 / 장 마리아 / 전 마리안나
전 안드레아 / 정 안드레아 / 진 크리스티나
황 글라라 / 익명(2)